

■ 지방선거 핫코너

김일태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확정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로 현 김일태 군수가 선출됐다. 15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김 군수는 전남 실시된 전 당원 여론조사 50%와 일반 주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 59.6%를 획득, 40.4%에 그친 전동경 예비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로 선출됐다. 김 군수는 이날 "위대한 군민과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승리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의 원·군의원 후보들과 합심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영 "F1대회는 전남의 귀중한 자산"

박준영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15일 "오는 10월 개최되는 F1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향후 계속되는 F1대회가 전남에 귀중한 자산으로 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영암 현대호텔에서 가진 FOM-버니 에클레스톤 회장 환담 및 F1 추진상황 보고회에 F1대회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에클레스톤 회장과 환담에서 "대회 개최 때까지는 기반시설 등 모든 준비가 끝나 대회를 완벽히 치를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전완준 "화순군수 재선 출마" 선언

전완준 화순군수는 15일 "중단없는 화순 발전을 위해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군수는 이날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는 중단 없는 화순 발전을 이룩하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될 것이다"며 "군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전국 10대 살기좋은 행복도시 건설 등 5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김종식 "완도군수 3선 출마" 선언

김종식 완도군수는 15일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해양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하겠다"며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군수는 이날 완도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도군민의 기대와 사랑을 가슴에 담아 완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재도약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도만의 경쟁력 있는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테크노폴리스 완도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난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반대"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5일 "재정악화와 비효율성, 도시홍물로 전락하게 될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광주 도시철도의 부채 총액은 지난 2007년 말 기준 3천748억 원에 달한다"며 "지하철 수송률 2%에 1조 원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교통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m 지상고가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은 '도시 흉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수 "교사 잡무 줄이는 대책 마련을"

김영수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학생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교사의 잡무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교사의 근본적인 사명은 학생 교육과 인성지도에 있는데도, 하루 평균 50건이 넘게 쏟아지는 공문을 처리하느라 수업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지시체계를 통합해 공문을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무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호 "고령자에 장수연금제도 시행"

최영호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5일 "남구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장수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현재 남구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7천904명 가운데 71.7%인 1만3천522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생활력이 낮은 고령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8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에 10% 이상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만근 "공공주도형 재개발 조례 제정"

김만근 민주당 광주시의원(남구 제2선거구) 예비후보는 15일 "공공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광주 구도심권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추진위원회, 철거업체, 정비업체, 시공사 간 음성적 거래와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무안군수 경선 무기한 연기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무안군수 시민공천배심원제 경선이 무기한 연기됐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5일 "무안군수 후보 추천을 위한 지역배심원 추출과정에서 참여 응답률이 너무 높아 조직 동원 등의 의혹이 있어 경선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배심원 선정 과정에 조직적인 참여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무안군수 경선은 서삼석·정해군 후보를 대상으로 전문(외지)배심원 100명과 지역 배심원 100명 등 총 200명의 배심원이 참석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한편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경선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무기한 연기됐다. /최권일·박진표기자 cki@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정은호·이상휴기자 ejchung@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kwangju.co.kr

與 "조사활동 우선" 野 "국회 진상특위" '천안함 정국' 여야 격돌

지방선거 영향 미칠 듯

천안함 함미가 인양되면서 '천안함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침몰 원인과 실종 장병 구조작업을 둘러싼 그간의 각종 의혹과 혼선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사고수습 및 진상규명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침몰이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기뢰나 어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면 과연 북한이 연관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정의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 와중에 천안함 관련 정보 공개 범위, 책임자 문책, 향후 대처방안 등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다. 또 실종 장병 전원이 회생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상당기간 '조문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당분간 사태수습에 주력하며 신중한 행보를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향후 해법을 놓고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 앞으로 다가가 갈등국면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국내외 합동조사단의 조사활동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당장 국회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원인규명에 본격 나설 것을 거듭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비칠까 우려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 해임건의안을 꺼낼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정국은 지방선거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일단 초대형 악재임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관련 여부 등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하면 크게 불리할 게 없

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극도의 민심이반을 초래해 정부·여당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선거 열기도 주춤 지는 분위기다. 각 선거캠프마다 각종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며 최대한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예비후보는 오늘 내일 중 계획된 일정을 연기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재선 도전에 나선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대표적 관광축제인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가솔로 미루기로 했고, 원희룡 나경원 후보도 이날만큼은 일일 행사인 공약발표를 자제했다. 또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는 21일 출마선언은 그대로 진행하되 16일로 예정된 '한명숙 추대위' 행사는 취소키로 했고,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역시 이날로 계획했던 서울시 공약발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위수현 장죽자치구에서 15일 중국 인민해방군들이 생존자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617명이 사망하고 313명이 실종됐으며 1만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연합뉴스

中 칭하이성 지진 사망·실종자 1천명 육박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위수 장죽자치구 위수현에서 14일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사망했거나 실종한 희생자가 15일 현재 1천명에 육박했다고 관영 중앙 TV방송(CCTV)이 보도했다. 위수지진지휘대책본부에 따르면, 강진 이

후 규모 4.0급 이상의 여진 4번을 비롯해 모두 606차례의 여진이 잇따른 가운데 617명이 숨지고 313명이 실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CCTV는 부상자 수는 9천110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970명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지진 발생 이틀째를 맞으면서 파손된 도로가 일부 복구되면서 생활필수품과 텐트, 의료품이 위수현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텐트 2만개와 5만벌의 면의류, 그리고 5만벌의 이불을 긴급 공수했고 위생부는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공안부는 지진 지역에 파견할 1천630명의 병력을 차출하고 있으며 국가특회국은 무인정찰기를 보내 지진 피해 현장의 모습을 공중 촬영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a building image and text: '압도적 1위 시설, 합격을 강시진', '79공무원 종합이론반/소방직 전문반', '7.4명 합격문제풀이', '서울시 9.9명 문제풀이 모집', '수석합격자 배출'.